人と

제2313호 2020년 11월 22일(가해)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염수정

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 쇄 가톨릭출판사

전 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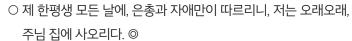
입당송 |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 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 에제 34,11-12.15-17

화 답 송 │ 시편 23(22),1-2¬.2∟-3.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 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 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제2독서 | 1코린 15,20-26.28

복음환호송 ┃ 마르 11,9.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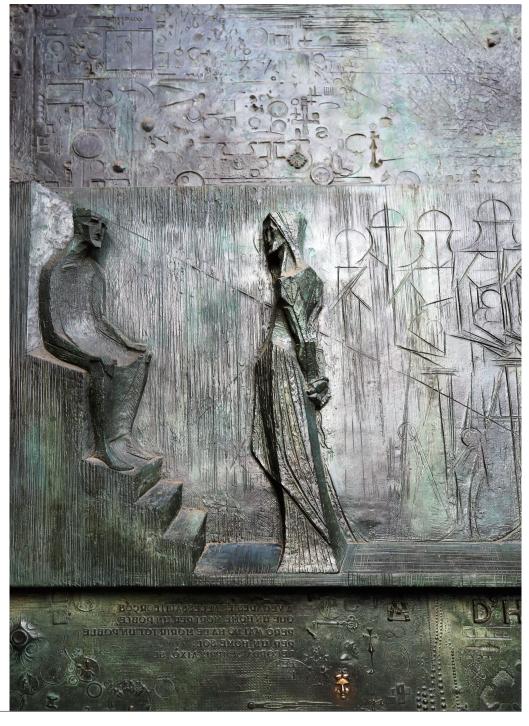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음 다태 25,31-46

영성체송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 여 평화를 주시리라.





갑과을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언젠가부터 갑을관계가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보통 계약서에서 주도권을 지닌 쪽을 '갑', 반대쪽을 '을'이라고 기재함에서 유래합니다. 갑을관계 문화는 위아래를 철저히 구분해, '갑'은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을'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을'은 '갑'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맞춰야 한다는 문화입니다. '갑질'과 반대되는 '을질'도 존재합니다. '을'이 상대적 약자임을 역이용하여 '갑'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갑'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성경말씀에서 갑을 관계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1독서(에제 34,11-12,15-17)에서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의 시비를 가리겠다"(에제 34,17)고 말씀하십니다. 복음(마태 25,31-46)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마태 25,32-33)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이 축일을 기점으로 전례력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교회는 최후 심판에 관한 말 씀을 경청합니다. 최후 심판의 핵심은 양과 염소를 가르 는 기준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 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 태 25,40)와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45)를 기준으로 하느님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을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따라,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을'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갑을관계로 따지자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된 '을'로 사셨던 분입니다. 제2독서(1코린 15,20-26.28)에서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 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1코린 15,28)라고 바오로 사도는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분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돌아가셨기에. 십자가 죽 음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세상에 밝혀주었습 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참된 '을'로 사셨던 그리스도 를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을'로 산다는 것은 자존 감을 떨어뜨립니다. '을'로 산다는 것은 억울합니다. '을'로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 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을'로 산다는 것은 기쁨이며 희망 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갑'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을'로 살고 계십니까?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우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45)



연중시기의 마지막 주일에 '빌라도 앞에선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당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바르셀로나 성가정성당의 영광의 파사드 문에 새겨진 부조입니다.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높아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모습은 우리 삶의 등불입니다.



스마트폰 쉼과 선용으로 일상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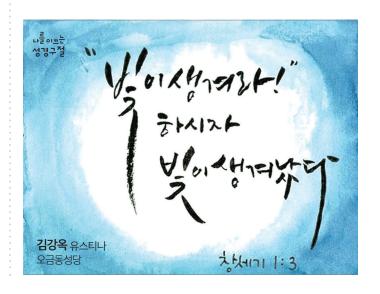
오늘은 저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를 쓰담쓰담, 토닥토닥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가톨 릭굿뉴스' 앱에서 진행하는 '모바일 복음 쓰기'를 시작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우리에 게 생명을 주는 복음 말씀과 늘 함께한 한 해였기에 더욱 뿌듯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복음을 쓰면서 앱에서 매일 주 어지는 룰렛 점수에 따라 "앗~싸, 에~이" 하며 웃고 찌푸 리는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지요.

그동안 성경 통독의 경험은 몇 번 있었습니다. 본당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3년에 걸쳐 성경 통독을 한 적도 있고, 구역 교우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새벽 미사 후 통독을 하고 각자 챙겨 온 음식을 나누며 신앙 대화로 꽃을 피웠던 시절도 생각납니다. 본당의 전례분과 봉사자들과 함께 복음서를 철야 통독하고 새벽 미사를 봉헌했던 경험이나, 대자들과 함께 집에서 통독했던 경험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랜세월이 지난 지금도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통독 경험은 다양하지만, 성경 필사는 번번이 실패한경험이 있어 왠지 아쉬웠고, 넓고도 깊은 복음 안에 담긴심오한 뜻을 이해하는 데는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올해 시순시기에는 제가 봉사하고 있는 평협에서 '스마트 쉼' 운동을 펼치며 시순 묵상 수첩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저도 글씨 연습도 할 겸 캘리그라피 세필로 복음을 쓰고 묵상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일상 안에서 우선순위가 하느님 위주로 바뀌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예수 성심성월을 기해 한국평협에서 굿뉴스와 함께 진행한 코로나 극복 이벤트에도 참여하면서 묵상 글에한 번 당첨되어 소확행의 작은 기쁨도 누렸습니다. 함께 참

여하신 전국의 많은 교우들도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되어 미사도 없는 힘든 시기에 복음을 쓰고 묵상하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순시기와 남은 한 해를 보내셨으리라 여겨져 개인적으로도 수고의 보람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핸드폰 과의존과 중독화 현상이 심해서 사 순시기만이라도 스마트폰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 각했었지만, 뜻하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오히려 스마트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에 도 움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종종 불필요하게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을 때가 있지만, 올해는 스마트폰 쉼과 선용을 병행하는 한 해가 되었고, 일상 안에서 말씀 쓰기를 우선순 위로 두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저를 사랑하 시는 주님의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고, 그동안 복음의 맛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애써주신 굿뉴스 측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감독_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

5년간 내 삶이었던

타인의

시락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감정이입과 공감

신경망처럼 촘촘히 연결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고독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 이데올로기와 이익 집단의 편향성과 적대성에 우리 자신의 자아를 맡기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 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대립과 타협이 실종된 문화 속에서

그러한 시도는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하여, 자아의 성숙을 후퇴시킬 뿐입니다.

영화 〈타인의 삶〉은 1980년대 분단 독일에서 버거운 삶을 살던 한 개인이 어 떻게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자아 를 해방시키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줍니 다. 동독의 국가보안부 '슈타지'의 비즐러 대위는 취조실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고 문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냉혈 인물입니다. 확고한 정치적 신념으

로 가득 찬 그는 반체제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 합니다. 그런 그에게 반체제 극작가 드라이만을 감시하라는 임무가 맡겨집니다. 드라이만의 아파트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를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비즐러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의 삶에 점차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드라이만이 읽던 시집을 가져와 읽으며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드라이만이 자살한 친구를 애도하며 연주하는 피아노곡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그는 드라이만에 점점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고위 관리에 의해 유린당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애인 크리스

타를 오히려 따스하게 품어주는 드라이만의 모습을 엿보면서 비즐러는 인간에 대한 참된 이해와 용서, 공감의 의미도 깨닫게 됩니다.

드라이만에 대해 공감을 갖게 된 비즐러는 그의 반체제 활동 계획을 알고도 눈감이줄 뿐만 아니라 조직 상부에 거 짓 보고를 하여 그를 보호하고, 체포의 위기에 빠진 그를

구해내기도 합니다. 결국 상관에게 발각되어 어두운 지하실에서 편지를 검열하는 직책으로 좌천되지만 비즐러는 오히려 행복합니다. 그가 생전 처음으로 경험한 감정이입과 공감의 과정은 그로 하여금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했을 뿐 아니라, 메마르고 공허한 정치적신념으로 꽉 채워진 자신의 자아를 성찰하고 치유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된 후, 드라이만 은 자신이 국가보안부에 의해 감시당하 고도 체포되지 않았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옛 동독 슈타지 본부의 문서 보관실을 찾습니다. 자신에 대한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는 자신의 행위를 묵인하고의도적으로 자신을 보호했던 한 비밀 요원, 비즐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2년 후, 드라이만은 새 소설을 발간하면서비즐러에게 감사의 헌정사를 바칩니다. 한 번도 그를 만나이야기를 나는 적도 없지만, 이번에는 드라이만이 그 2년동안의 침묵 속에서 비즐러에 대한 감정이입과 공감의 과정을 통해 비즐러의 삶과 자신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광모 프란치스코 | 영화사 백두대간 대표

오늘(11월 22일)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며 '성서 주간(11월 22일 ~11월 28일)'입니다

성서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 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월 29일(일)은 '대림 1주일'입니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며, 전례력은 '나해'를 따르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전 세계적 전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죽은 이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에 관한 교황청 내사원 교령

교황청 내사원은(2020년 10월 22일) 전 세계적 전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 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2020년 11월 한 달간 전대사를 수여한다는 교령을 발 표하였습니다.



전대사 조건은 QR 스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 년 희년 선포(2O2O년 11월 29일·대립 제1 주일~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

희년 주제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 낮 12시 희년 개막 미사 주교좌 명동대성당(주교단 공동 집전)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미사 2021년 8월 21일(토), 솔뫼 성지 2021년 11월 27일, 각 교구 주교좌성당 희년 폐막 미사

이번 주 기억활 선종 사제

• 1945년 11월 25일 최종철 마르코 신부(55세)

2021년 서울주보 코너

"나를이끄는성경구절" 손글씨 동도전 뭐

접수대상: 손글씨에 자신 있는 신자 누구나

작품규격: 정사각형이나 가로로 긴 직사각형(※세로로 긴 형태는 불가)

작품개수: 1인 1작품

작품형태: ① 종이에 붓과 펜으로 쓴 작품은 스캔하여 스캔본 접수

② 디지털 작품은 해상도 300dpi의 JPG 파일 접수

접수기간: 11월1일(일)~11월30일(월)

※ 공모 당선작은 2021년 서울주보 지면에 게재됩니다

(당선자 개별 통보)

더 자세한 사항 QR코드 클릭 ▲

風燃風

교구정알림 🤝

11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주제: 이스라엘의 광야생활 / 사목국 홈페이지 (www.samok.or.kr)를 통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합니다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박은희 회화전: 1전시실 고성연 회화전: 2전시실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학교밖사진일기':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25일(수)~30일(월)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 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지구별 상담소: 4성북지구(노동사목회관), 5지구 (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3지구(삼성산성 당), 17지구(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 / (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 (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문의: 02)727-2031 고 크리스티나 수녀

Hello

삶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월피정 때, 곳: 12월1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기도 2020 문화관 소성당 / 대상: 청년 누구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동절기노숙인 야간순회 후원품 모집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서울역과 을지로 인근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의 동사방지를 위하여 2020년 11 월16일부터 2021년 3월29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야 간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후원품들 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 11월22일~2021년 2월28일

모집내용: 남성운동화(265~280사이즈), 남성기능 성속옷(100~105사이즈), 핫팩

후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화로 사 전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속옷과 핫팩은 사용하 지 않은 새물건만 접수 받습니다

문의: 02)727-2547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0 대림특강: 미술사를 움직인 예술가들' 신청안내

가톨릭예술아카데미에서는 예술 속에서 참신앙을 느낄 수 있는 대림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문의: 02)751-4107, 4110 홍보위원회 대상: 20대 이상 천주교 신자 및 일반인(선착순 300명) 회비: 4만원(4주 일괄신청) / 신청: 온라인 신청(네이버 카 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때: 12월2일~23일 매주(수) 19시30분~21시

곳: 줌(Zoom) 어플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좌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이카데미' 참조

–		
12월2일	'안드레이 루블료프와 러시아의 황금 시기'	장긍선 신부
12월9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영성	김광현 교수
12월16일	앙리 마티스 신의 집을 짓다 '방스 성당'	가비노김 작가
12월23일	그리스도교 미술의 '광야' 상징을 통해 보는 위기의 시대 대림의 의미	하영유 수녀

직원모집

방화3동성당 연주자 모집 / 문의: 02)2661-2234, 5 모집 분야: 소프라노, 테너, 바이올린, 첼로, 피아 노(오르간 가능) / 활동 내역: 본당미사와 연주회 연주 곡명: Ombra mai fu : Largo di Handel 대상: 가톨릭 신자(또는 예비신자), 학생(또한 대학원생) 환영 봉사료: 유급 / 서류 심사 후 오디션(개별 통보) 12월6일까지 이력서 이메일(jys9059@naver.com) 접수

명동밥집(무료급식소) 조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신 분(필수) 분야: 주방조리(계약직) / 대상: 일요일 근무 가능자(필수),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우대), 단체 급식 조리경력자(우대) 서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참조 이메일(obos-hr@obos.or.kr) 및 우편(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22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인 사담당) 접수 / 11월24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가양동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2659-3272 분야: 관리인(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신자로 관 리자, 소방 안전 및 가스 전기 통신, 시설물 관 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우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 부님 확인서 / 12월6일까지 방문·우편(우 07524,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69) 접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인준단체 알림

모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예물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1월1일~30일 / 문의: 010-5482-3217

황사영가족묘 순례-제주 추자(송추성당)

때, 곳: 2021년 2월21일~24일, 천주교 성지 7곳 전체 담당: 라 이시도르 / 문의: 010-3736-1877

하느님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팔로티회)

때: 11월24일(화) 12시15분(강의·성시간)~14시50분(미사)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6층 / 문의: 033)432-4121

렉시오 디비나 피정(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아빠스와 함께하는 자연 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매주(토) 14시~(일) 14시, 올리베따노 성 베네 딕도 수도회(주최, 경남고성군) / 문의: 010-2816-1986

해넘이 피정

때: 12월30일(수) 16시30분~2021년 1월1일(금) 13시30분 곳: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주최) / 회비: 24만원 계좌: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후 입금) /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3차	11월27일(금)~12월5일(토)	
제84차	12월25일(금)~2021년 1월2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85차	2021년 1월22일(금)~30일(토)	010 33 10 7001

가정선교회 행사

문의: 010-2367-2297,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12월2일 9시30분~16시30분, 기톨릭회관7층강당/회비: 1만원 김밥 제공, 식수 준비	윤원진 신부 이현주 회장
× — 0—	12월5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홍성남 신부 이현주 회장

ᆔ육

대치 오르간아카데미 미사반주를 위한 오르간 교육

곳: 대치2동성당 / 문의: 010-9468-7660

캘리그라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블로그: pc21s.blog.me / 문의: 010-5313-6554(문자)

대림 온라인 자비와 회복 세미나

지도: 김태광 신부(팔로티회) 때: 12월1일부터 매주(화·금) 총 8회 **낮강의** 14시·**밤강의** 22시 중 선택 문의(접수): 010-8911-5957 천주교사도직연합회

원데이 묵주 만들기 체험(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 사이버 · 신자재교육)

주소: 서울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cdcc.co.kr

가톨릭상지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 2차 모집: 11월23일~12월7일 / 입학문의: 054)851-3021(http://www.csj.ac.kr) 교무입학처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설명회 • 겨울진학캠프

대상: 초6, 중1 / 문의: 054)338-0530

전입학설명회	12월5일(토) 14시
여름진학캠프	2021년 1월9일(토)~10일(일)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1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2차 원서접수: 11월23일(월)~12월3일(목)-전형일 12월 19일(토) / 문의: 02)705-8668(http://gsot.sogang.ac.kr) 인터넷(www.jinhakapply.com) 접수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 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HFIL	신학(교의·조직 / 영성)		
릭사	박사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실천·정책·행정)	
석 · 박사 통합		신학	가톨릭사회복지학

인천교구 지혜의 샘(북방선교기도공동체) 교육

곳: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문의: 010-5454-1871, 010-3248-9705 교육관에서 매일 미사와 묵주기도 100단이 있습니다

월	둘째·넷째주 하느님 자비 피정		
화	성경 말씀 아카데미		
수	전인적 치유 피정 목 찬양 치유 피정		
금	성시간과 함께하는 철야 기도회		
일	찬양과 함께하는 신앙 아카데미		

모집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단 모집

대상: 중1~고2 남녀 학생(2020년 초6학년 포함) 내용: 리더십 양성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비대면 포함) 접수: 12월13일까지 / 홈페이지(www.stvin.or.kr) 참조 곳: 서울 성빈센트청소년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6번 출구) / 문의(접수): 02)926-3440, 010-6880-9605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11월25일(수)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인미 -

영적상담 및 생활 피정 / 문의: 010-2310-9432 다음카페: 하비엘 영성학교(주최) / 예수회 신부

씨튼 영성센터 심리상담 / 문의: 010-6799 3732 우울, 불안, 관계갈등, 개인, 부부, 가족상담 대면 및 전화상담 가능(유·무료) / 박란희 수녀

성가정입양원(서울기톨릭사회복지회) / 문의: 02)764-4741~3 국내입양 상담 및 입양 전까지 아동을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 www.holvfcac.or.kr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관 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팬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치우치유TV' 유튜브 구독 안내(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치우치유TV를 검색한 후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내용: 치유와 위로의 영상 강의와 평신도영성 이야 기가 월요일마다 올라옵니다 / 문의: 02)753-8765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제2회 언택트 청년 특별 콘서트 '청고마비'

주제: 공정이란 무엇인가-너 공정? 나 불공정 출연: 류호정 국회의원, 김누리 교수, 이신혜 국 무총리비서실 행정관 / 문의: 010-9985-5452 때: 12월1일(화) 19시30분

곳: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유튜브, ZOOM 주최: 가톨릭독서아카데미(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정서-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섭식장애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 갈등과 문제, 대인관계 부적응 등

전 · 진 · 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가족치료 수지에니어그램	가족, 직장동료 등 관계자들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10세 이상 참가 가능(상시)
청소년 감정코칭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상처치유 프로 그램으로 진로 코칭으로 유도됨(상시)
전문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심리정서 (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수도회 성소모임	Ш	곳	문의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12월5일(토) 12시30분~16시	수련소(평창동)	010-9861-6691
예수 고난회	12월5일(토) 18시~6일(일) 11시	수도원(돈암동)	010-6804-4904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pnunskorea@catholic.or.kr)
한국외방선교회	12월6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 신간

푸른 물고기

홍승의 지음 분도출판사 I 256쪽 I 1만9천원 문의: 02)2266-3605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 '천사의 집'에서 백여 명 소녀들의 '아빠'로 살아가는 홍승의 신부의 마르코 복음 묵상집이다. 이제는 성인이 된 '큰 딸' 훌리아에게 건네는 편지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쉽고 선명한 언어, 이미지 대비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색다른 복음 묵상이 전개된다.



₩ 신간

병원지기 유쾌한씨

조성연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224쪽 | 1만3천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가볍고 재미있지만 깊이 있는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 책의 이야기는 병원과 가정 안에서 톡톡 튕겨져 나오는 사건 안에 깃든 '사랑의 송가'이다. 하늘병원 원장인 저자는 일상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우리안의 숨어있는 사랑을 불러내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신간

성령의 선물

채이병 옮김 한국성토마스연구소 I 208쪽 I 1만5천원 문의: 02)762-1194

이 책에는 주로 성령의 선물과 참행복에 관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적 가르침이 잘 제시되어 있다. '신학대전' 자체가 지니는 고전적 가치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은총 체험의 식별을 통한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다룬다.



₩ 신간

성 김대건 바로알기성 김대건 바로살기

생활성서사 I 문의: 02)945-5987 바로알기: 김정수 지음 I 215쪽 I 1만3천원 바로살기: 생활성서사 지음 I 143쪽 I 1만원

2021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 김 대건 신부님의 삶과 업적, 그리고 그의 삶을 오늘의 기도로 이어가기 위 한 노력으로 도서가 출간됐다. 김대건 신부의 삶과 신앙을 따라 사는 법 과 김대건 신부에 대한 정보와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담겨 있다.

CPD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cpbc TV 프로그램 '가톨릭 청춘어게인'

Q



방송시간 | [본방송] 매주 금 7시~9시 [재방송] 일 7시~9시, 월 19시~21시 목 14시~16시

첫 방송 12월 4일 금요일 7시

가톨릭 청춘어게인

대림을 맞아 cpbc 가톨릭평화방송 TV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가톨릭 청춘어게인(120분)"은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과 cpbc 가톨릭평화방송이 함께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송으로 만나는 노인대학입니다.

노년기의 즐거운 신앙생활과 유익한 정보를 소개하고, 신나는 노래와 율동, 즐거운 만들기, 그리고 어르신들의 고민 상담뿐 아니라 함께 떠나는 성지 순 레 등 다양한 코너들을 선보입니다. 코로나19로 본당 활동이 어려웠던 어르 신들을 행복한 신앙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2020.10.20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외부활동 건강수칙



기본수칙

- ·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모임·여행 자제**하기
- ·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 호흡이 어려운 경우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하기
- · 환기가 원활하지 않거나 밀집된 장소 가지 않기
- *불가피하게 방문 시 음식 섭취 자제 및 짧은 시간 머무르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고,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 ·침방울이 발생하기 쉬운 큰소리로 대화, 노래 등 자제하기
- ·음식은 나눠먹지 않고, 식기류 · 수건 등은 개별로 사용하기

증상 발생 시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 ·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인 명동대성당은 현재 긴급 하지 않은 비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정책 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주일헌금과 신자들의 의무 봉헌금인 교무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1일 기준, 본당 19,305세대 중 2,970세대만이 교무금을 책정하셨고, 이는 전체 대비 15.3%에 불과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신앙생활의 표현이자 하느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의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마음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교무금 책정을 못 하신 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책정·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교무금 책정을 먼저 하고 이체하셔야만 장애(납부자 확인 불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명동대성당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회직 기리두기 1단계 이당에 따르는 본당의 세부 지침 (2020년 10월 18일지 발령)

10월 12일(월) 오전 0시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맞추어, 수정된 본당의 세부지침입니다.

•개인 기도와 묵상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을 위해 10월 26일(월)부터 '평일(월~금요일)에 한하여' 대성전을 개방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1시 ~ 오후 4시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지하성지는 11월 8일 (주일)부터 매일 아래와 같이 개방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 11월 1일(주일)부터 상설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재개합니다.

■ 고해성사 : 월요일 ☞ 없음.

화 ~금 ☞ 오전 11시 ~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7시 주 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 그동안 중단되었던 단체 모임이나 회합 등의 활동은 지도 신부님과의 논의 후 단체장과 참석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단계적으로 재개 합니다. 단체장은 방역 준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그동안 중지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던 예비 신자 교리반은 대면 수업으로 정상화됩니다.
- 미사 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체온을 측정하고 이름, 세례명, 연락처, 소속 본당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후 입장이 허락된 분들은 입장 전 손 세정제로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합니다.
-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서 미사 참례인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주소지(거주지) 인근 본당에서 미사에 참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합니다.

-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면역력이 약한 초·중·고등학생



774-<u>1784</u>(LII) 753-1784(FAX)

본당 연량회 010-6375-1784

친주교시울대교구

주피죄명동미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올)신부

- 《 염수정 추기경님께 드리는 영적 선물 》=

11월 30일(월)은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추기경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교를 위한 기도
- * 미사참례, 묵주기도, 화살기도, 희생

- 《 축하합니다 》 —

11월 22일(주일)은 본당 청년 담당이신 **박 체칠리아 수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영육 간에 건강하시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 명동대성당 평일미사 시간 재편 (11월 30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요일 <u>07:00</u> , 10:00, 18:00	
화~금 <u>07:00</u> , 10:00, 18:00, <u>19:00</u>	
토요일 <u>07:00</u> , 10:00, 18:00, 19:00(늘푸른	
7:00, 9:00(영어), 10:00, 11:00 일요일 12:00(교중) 16:00, 17:00, 18:00, 19:00(청년)	

※평일과 토요일, 오전 7시 미사가 신설되고,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평일 오후 7시 미사가 재개됩니다.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 미사 시간 재편에 따른 본당 사무실 업무 시간

요 일	근무시간	비고
화~금	09:00~20:00	평일(화~금)
토요일	09.00*20.00	
일요일	07:00~20:00	

◉ 명동 보름장 개장

·일시: 11월 1일~11월 29일 매주 주일 10:00~15:00 ·장소: 명동대성당 들머리·가톨릭회관 앞마당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보실 때는 '장바구니'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 수 기부 진시 💠 🗢 -

명통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11월 9일 ~ 11월 15일 : 10,305,555원)

누개: 1,865,954,758원

의 명: 10,000,000원 | 5 홍 춘 화: 100,000원 | 오 오 주 환 50,000원

허 기 화 : 100,000원 익 명 : 55,555원

기부 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12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신자환영식은 12월 6일(주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401호에서 있습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수요반	오후7:30	교구청본관 402호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주일반	오후4:00	교구청본관 401호	이 안젤라 수녀

※각 반 50명씩 환영식 당일 선착순으로 접수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환영식 일정이 변경될수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봉헌금 접수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성당 안과 마당에 마련될 구유와 제대 트리, 꽃 장식을 위한 '성탄봉헌금'을 접수합니다. 뜻있는 분들은 본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세례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3,437,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 우리들의 정성 》 ━

- 교무금 (11/9-11/15)......16,502,000 • 연중 제 33 주일 헌금.....18,299,930
- 감사헌금 (11/9-11/15)......5,025,000

김 데레사 / 김 시몬 / 김 에스텔 박 스테파노 / 백 안젤로 / 오 마태오 이 레지나 / 이 요안나 / 임 사무엘 조 마리스텔라 / 조 안나 / 조 헬레나 최 베로니카 / 하 바틸다 / 홍 플로라 황 데레사